



현대카드, 브랜드 공간·사옥 'UL VHB' 마크

현대카드는 'UL 건강한 건물 인증 실내환경 품질 평가(UL VHB)'를 통해 이태원과 신사동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공간과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이 UL VHB 마크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정문 UL 솔루션코리아 대표(왼쪽부터), 손 맥크래디 UL 솔루션 기업 지속가능성 부문장, 전병구 현대카드 경영관리부문 대표, 김명호 현대카드 기업문화실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카드



한화손해보험, 여성 암 경험자 일상 회복 응원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31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여성 암 경험자 200명을 초청해 힐링LIFE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적 성장과 외적 변화를 통해 여성 암 경험자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응원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한화손해보험



CJ도너스캠프, 문화동아리·대학생봉사단 활동

CJ도너스캠프가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청소년들의 문화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2025 CJ도너스캠프 문화동아리'와 '대학생봉사단'의 공동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생멘토 대표 강기석 씨와 CJ사회공헌추진단 정미영 사무국장, 청소년멘티 대표 진예림 양(왼쪽부터)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CJ도너스캠프



식품산업협회, 'KFIA협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남춘천CC에서 '제4회 KFIA협회장배 골프대회'(이하 협회장배)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대회는 이효호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왼쪽 세번째) 등 식품산업계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대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초청한 프로 등 약 11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인크루트, '일자리 박람회' 운영

취업 성수기인 6월, 인크루트가 강남구 최대 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 맞춤형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인크루트는 '2025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를 단독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일자리 박람회 가운데 단독 주최로는 최대 규모인 이번 박람회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코엑스 1층 B2홀에서 열린다. 강남구와 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활성화를 목표로, 구직자와 기업 간 매칭 기회를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HLB그룹, 펩타이드·단백질분야 전문 역량 강화

신약·헬스케어 등 경쟁력 강화 “그룹 차원의 협력 확대 계획”

HLB그룹이 차세대 바이오 분야인 펩타이드 및 단백질 전문 역량을 강화하며 신약개발, 원료의약품, 헬스케어 등 다양한 바이오 시장에서 입지를 넓힌다.

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LB테라퓨틱스는 미국 자회사 리젠트리를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에서 성과를 거둬 글로벌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리젠트리는 지난2일 유럽 의약품청 산하 소아위원회(EMA PDCO)로부터 팀베타신 아세테이트 점안제 'RGN-259'와 관련, 소아임상연구계획(PIP) 완전 면제 요청이 수용 가능하다는 서신을 받았다.

'RGN-259' 소아임상연구계획(PIP) 제출 생략으로 리젠트리는 유럽에서 신약 품목허가 신청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안기홍 HLB테라퓨틱스 대표는



진양곤 HLB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각막 윤부 줄기세포 결핍증(LSCD)로 적응증을 확장하는 등 RGN-259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글로벌 빅파마들과 라이선스 아웃을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HLB그룹의 바이오소재 기업인 HLB제넥스는 ‘대체 단백질’ 개발에 나선다.

HLB제넥스는 국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년 바이오산업기술개발(첨단바이오신소재)사업의 국책 과제를 주관하게 됐다. 과

제명은 ‘식이용 핵심 동물성 단백질 원료의 미생물 기반 대량생산 및 응용 제품 개발’로 오는 2029년까지 총 57억원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는다.

이 과정은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해 안전성이 입증된 미생물로 재조합 우유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LB제넥스는 고기능성 단백질을 개발 및 생산해 바이오소재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

GC녹십자, 말레이시아 혈장분획제제 시장 진출

자켈그룹 SISB 임가공 계약 체결

GC녹십자가 말레이시아 자켈 그룹 산하의 솔리드 인텔렉추얼 SDN BHD(SISB)와 혈장분획제제 공급을 위한 임가공 계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민간기업인 자켈 그룹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SISB는 제약 및 의료기기 유통을 담당하는 계열사다.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자국 혈액원을 통해 확보한 혈장을 SISB에 공급하며, SISB는 이 혈장을 GC녹십자로 유통하게 된다. GC녹십자는 해당 혈장을 원료로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혈액제제 완제품을 생



지난 2일 GC녹십자와 SISB의 혈장분획제제 임가공 계약식에서 허은철(왼쪽) GC녹십자 대표와 다독 모하메드 니잠 빈 모하메드 자켈 SISB 대표(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C녹십자

산한 뒤, 이를 다시 SISB에 수출한다. 오는 2026년부터 최소 4년간 2400만달러 이상의 혈액제제를 말

레이시아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 약 15년간 글로벌 제약사 CSL이 독점 수행해오던 사업을 GC녹십자가 새롭게 주주한 것이다. 아시아 기업이 해당 사업자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말레이시아는 혈장분획제제의 자급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정책 지원이 병행되고 있어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

이우진 GC녹십자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혈장분획제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LG생활건강 ‘반짝반짝 페리오’ 공연

LG생활건강이 어린이 건강 뮤지컬 ‘반짝반짝 페리오’ 공연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반짝반짝 페리오’ 공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한국메세나협회 주최, 음악극장작단 통방 주관으로 진행된다. 서울 노원구의 한 유치원에서 첫 막을 올린 뒤, 전국 초등학교, 문화예술회관 등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공연을 관람하면서 올바른 이 닦는 법, 손 씻는 방법, 기침 예절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이청하 기자

부음

▲장동섭씨 별세, 최승희(NH투자증권재경1본부장씨 사부상=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5일. 02-2258-5940

웅진, ‘한국로지스틱스 대상’ 수상

물류플랫폼 부문 수상

웅진이 (사)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로지스틱스 대상’에서 물류플랫폼부문 대상을 받으며 물류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이끈 기술력과 실행력을 입증했다.

3일 웅진그룹에 따르면 한국로지스틱스대상은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지난 1998년부터 국가 물류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단체 및 전문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웅진은 독일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기업 SAP가 제공하는 확장형 물류 관리 솔루션 SAP EWM 기반으로 자체 제작한 ‘W-WMS(WiJAR D-Warehouse Management System)’를 통해 복잡한 물류 현장 개선과 고객 맞춤형 물류 혁신에 기여



‘2025 한국로지스틱스대상’에서 웅진 이상용 ERP1사업본부장(가운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웅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웅진 관계자는 “물류 솔루션 분야에서 웅진의 혁신성과 실적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장을 통해 고객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다. 전통적인 우유 단백질을 대체하는 재조합 단백질을 활용해 의료용 특수식, 고령 환자 영양식 등으로 상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펩타이드 소재 전문기업 HLB펩은 해외에서 원료의약품 품목허가를 획득해 수출국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에서 HLB펩이 공급한 야노증 치료제 ‘데스모프레신’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HLB펩은 국내 최초 펩타이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 공장, 대용량 펩타이드 공급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

HLB그룹 측은 “HLB펩이 그룹에 합류하면서 그간 미진했던 신규 바이오 소재 개발, 글로벌 영업 등 모든 분야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며 “회사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룹 차원의 협력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북콘서트’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정독도서관 주관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북콘서트’를 총 6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학부모 북콘서트’는 서울시교육청 대표 독서캠페인 ‘북웨이브(Bookwave)’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부모와 독서실천단 ‘북웨이브크루’가 함께 참여해 책을 매개로 공감과 소통의 장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학부모 독서동아리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 평생독서 기반 조성 and 교육공동체 간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

중앙대 수소운송 신기술 개발

중앙대학교가 차세대 핵심 에너지 지원으로 주목받는 수소의 운송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중앙대는 이철진 화학공학과/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학과 교수가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 퍼듀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소의 장거리 해외 운송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탄소 배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공정 전략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산화탄소와 열을 함께 순환시키는 ‘이중 고체 캐리어 기반의 하이브리드 CO2/열 루핑 시스템’을 고안했다.

그 결과 새롭게 제안된 운송 방식은 기존 대비 최대 46% 이상 탄소 배출을 줄이고,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현진 기자